

화폐의 국내 발달사

화폐란 거래를 원활히 하는데 쓰이는 매개물의 일종으로 이 매개물은 조개껍데기, 옷감, 소금처럼 물건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오늘날에 사용하는 지폐나 주화일 수도 있다. 이러한 화폐의 기능으로는 가치척도, 지급수단, 가치저장, 교환의 기능이 있다.

김 주 용 제일은행 대리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자급자족 단계를 거쳐 물물교환 단계로 접어들면서 무기와 각종 생산 도구, 장신구, 가축, 곡물류 등이 물물교환때 사용되었고 이 교역물은 한반도에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더욱 다양해졌으며 삼국시대 이후에는 대외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화폐제조의 필요성은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대체로 고대사회에는 물물교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에 비로소 “건원중보”라는 화폐를 만들었는데 뒷면의 “동국”이라는 글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동전 화폐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후 해동전을 비롯하여 동국전, 삼한전 등 많은 화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밖에도 은병, 쇠 등도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것들이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화폐의 유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조선시대로 저화(1401년)나 조선통보(1423년)의 제조처럼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화폐가 만들어졌으나,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은 상평통보(1678년)였다. 그후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약 2세기 동안 전국적으로 사용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금·은본위 화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전적으로 화폐만을 만드는 기관인 전환국이 생겨났고, 전환국은 1882년에 대동은전을 발행한 이

래 많은 동전을 만들었다.

또한 1909년에는 한국최초의 은행인 (구)한국은행이 생기면서 3종의 지폐(일환권, 오환권, 십환권)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일본 제일은행권이 사용되는 등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심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결국 1910년에 강제로 합병을 하였으며, 조선은행권이 유통되었다.

1945년에 해방된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불안하였고 이것은 모두 세차폐에 걸친 화폐개혁으로 표출되었다. 1차 화폐개혁(1950년)과 2차 화폐개혁(1953년)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특히 2차 화폐개혁 이후에는 화폐단위가 원에서 원으로 바뀌었다. 그후 3차 화폐개혁(1962년)때 다시 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고액원인 만원권이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표, 어음, 신용카드 등 은행권 이외의 유사화폐의 이용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는 신용카드가 확산되면서 신용화폐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전자화폐라는 새로운 돈이 출현할 것으로 예견되고 이미 광의의 전자화폐 개념인 선불카드 등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조선 · 삼한 · 삼국시대의 화폐의 유통

고조선시대

고조선사회에 법률로 금지하는 8조법금중 3조만이 현재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중 화폐에 관련하여 믿을 수 있고 주목해야할 하나는 『남의 신체에 입힌 자는 곡물로서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있어서 우리는 곡물이 가치척도의 기능과 지급수단의 기능을 그 시대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삼한시대

벼농사의 농업과 마포와 견포를 생산하는 수공업이 등장하여 잉여생산물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물물교환의 불편을 제기하기 위한 물품화폐가 등장하였다.(곡물, 마포, 견포 등)

삼국시대

농업의 중심산업으로 생산성 향상되어 쌀, 보리, 조, 수수, 콩 등의 곡물이 생산되고 수공업기술도 발달로 술, 기름, 꿀, 간장 등이 생산되었으며 직물품으로는 베, 모시, 비단 등이 생산되었다.

또한 금속공업의 발달로 금·은·철 등이 생산되어 금속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졌다.

- 물품화폐의 사용 : 쌀, 포 · 견직물
- 금속류의 유통 활발 : 농기구, 무기 등

고려시대의 화폐와 유통

후삼국을 통일하고 건국한 고려는 차츰 제도가 정비되면서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농업과 수공업 등 여러분야에서 생산이 점차 증대되었다. 성종 15년(996년)에 건원중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동전은 정부의 강제적인 유통 정책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 않아 결국 목종 5년(1002)에 이르러 이 정책은 폐지되었다.

그후 약 100여년이 경과한 뒤인 숙종 2년(1097)년

이르러 다시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시키자는 주장에 의해 화폐를 만들고 관리하는 주전관을 두게 되어 이 시기에 많은 화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숙종 2년(1097)에는 해동통보를 비롯하여 해동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등의 제조가 되었으며 숙종 6년(1101)에 은병이 제조되었다. 그러나 이 동전들은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쌀과 베가 이러한 화폐를 대신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쇠은과 소은병이 사용되었으며, 원나라의 영향으로 보초가 많이 통용되었다. 이 보초는 최초의 외국 화폐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화폐와 유통

고려 말의 혼란 속에서 세워진 조선 왕조는 새로운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다방면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조선은 특히 이전보다 중앙집권적인 통치제도를 확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물품화폐보다는 명목화폐 제도를 실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시도로 태종대에는 저화제가 실시되었고, 세종대에는 조선통보를 발행하였으며, 세조대에는 전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전을 유통시키려는 정책은 실패하였다. 당시의 일반인들 사이에는 주로 쌀과 베를 교환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화폐 가치를 실용성에서 찾고 있었으므로 명목화폐인 저화나 동전은 제대로 유통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도 당시의 대표적인 물품화폐인 베를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하였다.

결국 조선전기에 추진되었던 화폐정책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미비, 화폐원료의 부족, 미숙한 정책 등으로 실패하였다.

본격적인 명목화폐의 유통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시행될 수 있었다. 숙종대(17세기말)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상평통보의 유통이 그것이다. 비록 상평통보 발행 이전에 십전통보가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유통

<표> 돈의 한국사

시 대	화폐의 발급	지급결제제도	사 회 환 경	
선사 및 고대	- 폐화, 어폐, 경폐 - 포전, 도전 - 청량화폐 - 금·은 무문전	- 자급자족 - 물물교환	- 고조선시대의 8조법금 - 농업과 수공업등장(삼한시대) - 금속공업발달(삼국시대) - 화폐제조의 필요성 대두	
고려시대 (996~1392)	- 건원중보 - 해동통보 - 삼한통보, 삼한중보 - 은병, 소은병 - 쇠은	- 물물교환 - 실물화폐	- 국가제도정비에 따른 국가 제정이 튼튼 - 농업과 수공업등 생산의 증대로 재화의 종류 다양 - 대각국사의천의 주화제조건의	
조선시대 (1394~1892)	- 저화(지폐) - 조선통보 - 전폐 - 십전통보 - 상평통보 - 어음	- 물물교환 - 실물화폐 - 명목화폐	- 조선왕조의 새로운 통치체제 정비하여 많은 발전 이룩 - 중앙집권적인 통치제도 확립 - 조선진기시대의 화폐정책실태 - 명목화폐 조선후기부터 시행 - 최초로 어음 사용	
근대시대 (1893~1944)	- (구)한국은행권 - 일본제일은행권 발행 - 조선은행권 발행	- 동전 및 지폐	- 개항이후 선진 여러나라와 통상거래 발생 - 일본의 경제적 침략 - 한일합병 및 일제시대	
해방이후 (1945~1948)	- 조선은행권 발행	- 동전 및 지폐 - 자기앞수표제도 도입	- 미국 군정 실시 - 대한민국정부수립 - 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	
대한 민국 (1949~ 현재)	1963 1969 1981 1994 1996	- 한국은행권 - 어음, 수표 - 신용카드 - 가계수표 - 선불카드 - 직불카드	- 동전 및 지폐 - 어음, 수표 - 신용, 선불, 직불 카드	- 6.25 전쟁 발발 - 1차 화폐개혁(1950) - 2차 화폐개혁(1953) - 3차 화폐개혁(1962)
	미래	- 전자화폐	- IC 카드	-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 개막 - 전자상거래 - 인터넷, 비추얼 banking

통은 상평통보 발행 이후부터였으며 그 후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약 2세기 동안 전국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상평통보가 통용된 것은 17세기부터 생산이 증가되고 상공업이 발달되었으며, 정부도 또한 국가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평통보는 크게 당일전, 당이전, 당오전, 당백전 등으로 나누어지며, 그 형태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이와같은 화폐의 보급은 그 이전의 사회와는 다른 사회, 즉 근대로 이행되는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근대의 화폐

근대의 화폐는 개항 이후 대동은전이 발행된 1882년부터 일제의 강점(1910~1945) 이전까지이다. 근대화폐제도의 수용은 조선 말기 당백전 등의 통용으로 화폐제도가 어려워지자 체제와 품질이 통일되고 운반이 편리하며 가치가 안정된 근대 금·은 본위 화폐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선진 여러나라와 통상 거래에서 생겨나는 장애와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책은 열강의 이권에 따라 변화되었다.

근대화폐의 제조는 대동은전부터 시작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설치하여 1883년에 15종의 시주화를 주조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 후 1891년에 은본위 화폐제도를 공포하고 인천 전화국에서 은전을 비롯한 백동전, 작동전, 황동전 등 5종의 근대화폐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본위 화폐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기는 갑오경장 때 5냥 은화를 중심으로 한 “신식 화폐발행장정”이 시행된 때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은본위화폐인 5냥 은화는 극히 소량만이 만들어졌으나 보조화폐인 백동화가 남발됨으로써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01년에 금본위 화폐제도를 공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당시 정권을 친러파가 장악하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조선 정부의 허가도 없이 일본 제일은행권을 통용하였다. 일본 제일은행권의 발행은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

로 정부 당국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무력 시위로 이 운동은 결국 실패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더욱 한국정부를 간섭하여 일본인 재정고문의 계획에 따라서 1905년에 금본위제를 채택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때 9종의 동전을 만들었다. 그 후 비록 190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인(구)한국은행이 일시 설립되기도 하였으나, 이 시기의 화폐정책은 일본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제시대의 화폐

한일합병이후 1년만인 1911년에 일제는 조선은행법을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구)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바꾸었다. 이후에 일제시대에 발행되었던 화폐는 조선은행권이었으며, 해방전까지 19종의 화폐가 만들어졌다.

조선은행권은 1914년에 대흑천상을 초상으로 하는 백원권이 발행되었으며, 1915년에는 일원권, 십원권을 만들었다. 그 뒤 조선은행권은 계속 발행되어 만주 지방과 중일전쟁 때에는 중국 본토에까지 유통되었으며, 그 발행고는 (구)한국은행이 제일은행으로부터 인계받은 발행고 1180여만원에서 광복 때에는 4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조선은행권은 일제 말기에 전쟁의 영향으로 일본 내각인쇄국에서 발행되었던 것이 한국내에서 발행하게 되었으며, 많은 은행권의 필요로 고액의 천원권(1944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1년부터 화폐발행이 급격히 늘어난 해방 직후의 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게 되었다.

해방이후의 화폐

1945년에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한 자치적인 정부는 곧바로 수립되지 못했다. 미국은 군정을 실시하였고,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조선은행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고액권(백원권)등을 새로 만들게 되